

반이민법 갈등은 '멜팅 팟' 미국 포용정책 실패 상징

(melting pot : 다인종사회)

2부 - 해외 다문화 현장을 가다

12 백인 우월주의에 짓눌린 미국

미국 LA=글·사진 이종행기자

미국 LA로 이민을 지 1년째인 김성식(12)군은 6개월 전까지 백인 학교에 다녔다. 정통 미국식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학교 생활은 쉽지 않았다. 김군은 백인 친구들로부터 "Yellow monkey(노란 원숭이·동양인을 비하하는 속어)"라는 모욕적인 말과 함께 특이한 놀림을 당했다.

김군에게 말을 건네는 친구도 없었다. 단지 '키가 작은 동양인이 싫다'라는 이유였다. 결국 김군의 부모는 흑인과 히스패닉, 동양

이 이주민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민자들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이들의 불만도 점차 커지고 있다.

LA 이민자들 '반이민 단속법' 분노=지난 23일 LA의 맥아더공원(MacARTHUR PARK). 이곳은 지난 2007년 5월 1일 '반이민 단속법'에 반발해 이민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던 곳이다. 이후 매년 5월 1일이면 이민자 권익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4년 전 이곳에서는 차별과 실업문제로 극심한 소외감을 느낀 흑인과 히스패닉, 동양계 이민자들의 분노가 폭발, 반이민법에 항

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물질적 지원을 통한 문화 융합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게 현지 이민자 지원 단체들의 지적이다.

특히 애리조나주가 최근 발의한 '반이민법'(HR 4437)은 다른 주로 점차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이민법'은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것은 물론, 이를 돕는 시민단체나 개인까지도 형사처벌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의 경우 상당수 이민자 2세들은 취업보다 가업을 잇는 일이 많다. 백인이 아닌 경우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회사의 일자리를조차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백인이 운영하는 기업은 백인을, 한인인 운영하는 기업은 한국인을 우선 채용한 뒤 나머지 10~20%만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이민자를 뽑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아랍계, 아프리카계 등 이민자 이름 만으로도 입사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캘리포니아주 세리토스시(Cerritos City) 조재길 시장은 "한국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진정한 포용 없이 '피주거'의 지원 정책에만 매달리면 멀지않은 미래에 커다란 재앙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미국 LA시 다운타운 대형 쇼핑몰 앞길에서 히스패닉·아시아인·아프리카계 미국인 등 다민족들이 미국 한 방송사의 쇼 프로그램 제작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이들은 다문화 사회인 미국의 구성원이면서도 뿌리깊은 차별과 소외를 겪는 등 비주류에 머물고 있다.

다민족·다인종 차별 금지에도 사회 시스템은 한계

"물질적 지원만은 다문화주의 완성 이룰수 없어"

인 등이 많이 다니는 학교로 전학할 수밖에 없었다. 김군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백인들에게 놀림을 당했는데, 이제는 나도 백인들이 싫다"고 말했다.

◇이민자 정책 '사각' 상대적 빈곤 심각=미국 연방정부는 다민족·다인종에 대한 차별을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합중국 헌법과 민권법은 물론, 차별철폐정책이나 브라운(Brown) 판결은 '민족이 다르다고 교육·취업·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백인과 다민족 간 갈등은 여전히 잠재돼 있다.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1993년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흑인들의 한인 가게 폭력·약탈사건이다. 이 사건은 표면상 흑인과 흑인 간의 문제였지만, 이면에는 백인 경찰관의 흑인에 대한 과잉대응이 백인 흑인들의 불만 표출이었다.

백인 우월주의의 잔재는 다문화주의의 완성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차별을 경험한 이민자들은 "우리가 미국 시민이라는 것은 단지 정책호보 수단일 뿐"이라는 불만을 품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LA경찰국(LAPD)은 지난해 LA에서 접수된 인종차별 신고 건수는 216건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미국에서 백인의 실업률은 8.8%로, 전체 실업률(9.7%)을 밑돌고 있다. 반면, 히스패닉의 실업률은 12.6%로 백인에 비해 월등히 높고, 흑인은 두 배(16.5%)에 달한다.

이민자들을 사회의 '비주류'로 보는 백인들의 의식과 이들 백인 위주의 사회 시스템

의하고 이민법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하루에만 이민자 100만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LA는 전체 인구가 백인(49%)보다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이민자 수가 더 많은 곳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이민자 지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포용적인 곳이다. 따라서 LA 이민자들의 대규모 집회는 미국의 이민자 동화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사건이었다. 무엇보다 이민자들은 경제적 취약성과 상대적 불평등을 가장 큰 불만으로 꼽고 있다.

LA민족학교 윤대중(40) 사무국장은 "이민자들의 분노는 좁게는 그동안 갇혀있던 이민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수면 위로 올려놓았고, 넓게는 이민자 포용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2008년 현재 미국은 백인계가 전체 인구의 7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계 12.3%, 아시아계 3.6% 등의 순이다. 또 전체 50개 주 가운데 유색인종이 백인 인구보다 다수를 차지하는 곳은 하와이(80%), 캘리포니아(68%), 뉴멕시코(67%), 텍사스(61%), 미시시피(53%) 등 6곳에 이른다.

◇포용없는 물질적 지원정책의 한계=미국은 다인종 국가답게 다양한 이민자 지원 및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민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까지 유사한 의료보험과 노령연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일반 학교와 회사에서는 다문화·다민족 학생 및 회사원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중언어교육과 문화 교육 등

LA 찰스김초교 케리컬리 교장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다문화·다민족의 다양성을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도록 교육시켜야 합니다. 다문화 선진국인 미국 역시 다문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대규모 소수 사대 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2시(현지시간) LA시 옥스퍼드가 '찰스 김 초등학교'(Charles H. Kim Elementary School)에서 만난 케리컬리(Kerry R. Kehrlay) 교장은 다양한 언어·문화적 특성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국가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샐러드 보울(salad bowl)' 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컬리 교장은 다문화가정 2세들을 미국 사회에 무작정 동화시키기보다는 이들의 언어·문화를 지켜주고 존중하는데 교육

"자국문화 주입식 교육 바뀌어야 해요"

목표를 두고 있다. 소수 인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과 사전 예비교육은 미국 교육계에 서도 모범 사례로 꼽힌다.

컬리 교장은 "피부색과 문화, 종교는 달라도 모든 인종은 평등하다"며 "남들보다 언어를 서툴러도 학생 모두에게는 나름의 장점이 있는 만큼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소수 인종 학생들이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항상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도와주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들이 교육·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학생들 간에 언어폭력이나 인종차별, 왕따, 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

우 LA교육구(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한다. LA교육구는 매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교내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담긴 가정통신문을 가정에 보내 부모와 학생·담임 교사의 동의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이 이를 어기면 2차례에 걸쳐 구두 경고를 한 뒤 정학 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어릴 적부터 남을 존중하고 스스로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는 교육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는 지난 2007년 5월 LA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민자 시위 등을 떠올리며 "한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다문화 2세 교육이 미국의 초기 다문화 정책 중 하나였던 이른바 '용광

로'(melting pot) 주의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용광로' 정책은 각 나라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이민자들을 자국 문화에 융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는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고 있던 다문화 2세들을 본 적이 있다"며 "대부분의 다문화 2세들은 한 번 잘못된 길로 접어들면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보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홍스페이스 상무점 오픈

엔틱 - 100% ITALY 다기능 좌탁

엔틱 - 100% ITALY 다기능 식탁

클래식 - 100% ITALY

세미모던 - 100% ITALY 사또닥스

서구 화정동 307-1 **화정동사거리** 구, 안기부 대로변 푸조전시장 400평 062-382-0022
 동구 장동 58-15 **문화전당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062-226-7567 SINCE 1990

특허번호 제 10-0488090호 | 실용신안등록 제 20-0374637호 | 실용신안등록 제 20-0355402호 | 실용신안등록 제 20-0333037호

가맹점 모집

★점포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희소식!
전두부 자동 제조기 하나면 OK!
 ※ 콩 관련 업종(기존식당) 재창업 및 업종 변경

전(全)두부리? 기존 두부와 전혀 다른 콩의 고소한 맛과 푸딩처럼 부드러운 이미 선진국에서 장수음식으로 즐겨 먹고 있는 두부입니다.

전두부의 영양 - 전두부와 일반두부의 주요 성분 비교(100g당 함량)	
전 두 부 : 약 3400mg(약 11배)	식이섬유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막아주로 성인병 예방, 변비개선 및 다이어트 효과
일반두부 : 약 300mg	
전 두 부 : 약 27.63mg(약 270배)	사포닌 대두의 사포닌은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여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심장병, 담석증 예방에 효과
일반두부 : 약 0.1mg	
전 두 부 : 약 29.95mg(약 30배)	레시틴 대두에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알,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 우울증, 골다공증 등의 예방에 효과
일반두부 : 미량	
전 두 부 : 약 29.17mg(약 3배)	이소플라본 식물의 배에서 분리한 특수 지방질 이성분은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며 치매 예방에 효과적임
일반두부 : 약 9.3mg	

웰빙 명품두부, 푸딩처럼 고소한 '콩의 맛'

대구 영남대학교 기술개발사업(주)대양이텍이 세계 최초로 기쁨을 전여 받지 않고 자연유기 저지방 방식으로 초·위생적인 명품 두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초보자 창업 제조공정이 간단하며 본사의 적극 기술 지원 창업 용이

소자본 창업 가맹비, 로열티가 없다. 창업자금(상승공인, 라스) 지원 운영, 홍보 등 본사 적극 지원

고수익 창업 점포 선정부터 완벽 노하우 전수, 메뉴(기능성) 다양으로 인한 고수익, 본사 적극 지원

※ 100% 국내산 콩만을 고집하는 명품 두부 기능성 두부(녹차두부, 카페두부, 흑두부, 썩두부)
 ※ 최고 상권 다양 확보 보유, 적은 형벌 ~ 큰 형벌 운영 가능

오른 가능 지역 광주, 순천, 목포, 여수, 전주, 익산, 군산

광주·전남 체인본부 NAVER 대양이텍 검색

상 담 ☎ 062)383-0029, 080-335-0202 (공이콩이)
 문 의 ※ 위치 :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센터 후문 옆 ※ 매주 토요일 PM 1:00~ 시작 가능합니다.

오픈 1호점
 광주 금호지구
 종원팰리스빌 및 뒷밭 상가 옆